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A Comparison of Time Use between Korean and the USA Familie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이연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전공

교수 조희금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사 주인숙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tudies, Univ. of Utah

교수 : Zick, Cathleen, D.

Dept. of Human Environments, Utah State Univ.

조교수 : Lee, Yoon 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 : Lee, Yon-Suk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Lee, Ki-Young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Kim, Oi-Sook

Dept. of Family Life Welfare, Taegu Univ.

Prof. : Cho, Hee-Keum

Korean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KRPIA)

Director : Ju, In-Sook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tudies, Univ. of Utah

Prof. : Zick, Cathleen, D.

Dept. of Human Environments, Utah State Univ.

Assistant Prof. : Lee, Yoon G.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과제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이연숙(E-mail : yonsuk@korea.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atterns of time use between Korean and USA families. The data for 353 Seoul-based Korean families with two children living in Seoul and 130 USA families with two children living in the State of Utah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major findings were as the following:

1. The Korean couples spent more time at personal care, paid work, and travel than the USA couples did, while the USA couples spent more time at housework and social-cultural activities than the Korean couples did.

2. The Korean wives spent more time doing food and clothing related housework than the USA wives did. Compared with the Korean wives, however, the time spent at house cleaning and management, family care and shopping and home management were longer than USA wives. The time U.S. husbands engaged in housework was much greater than by the Korean husbands.

3. Regardless of sex and school level, the Korean children spent less time at sleeping/rest, housework and socio-cultural activities and more time at eating and learning than those of U.S.

These time use patterns of the families in both countries may reflect the differences of the cultural contexts, social norms, life styles, and the degrees of urbanization. To fully explain the findings, further study on the differences in social and cultural fac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eeded.

▲ 주요어(Key words) : time us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 children's time use, couple's time use

1. 서 론

1. 문제의 제기

시간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 있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성이나 연령,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방식이나 타가족원의 특성,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개인이나 가족의 시간 배분방식은 이들의 생활양식과 생활습성을 보여주며, 나아가서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 나라 국민의 생활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그 나라 생활문화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 및 시간 배분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자료수집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에 이르러서야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의 시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연구기관에 의해 10년 이상의 간격으로, 캐나다는 6년마다, 일본의 경우 5년마다, 노르웨이의 경우 10년마다 전국적 규모로 시간조사가 수행되고 있다(Pentland, Harvey & Lawton, 1999).

한편 각 나라별로 시간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 자료

를 가지고 국가간 비교를 하는 데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표집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법, 코딩체계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 국제 비교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서구에서는 Szalai(1972)의 12개국에 대한 생활시간 국제비교를 시작으로 해서 두 나라 이상의 생활시간 국제비교 분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표본 추출된 주민과 시간분류 및 코딩체계가 다른데서 오는 비교연구의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비교국가간 광범위한 협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유럽에서는 생활시간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통계연맹 주관으로 공통의 생활시간 분류항목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유럽통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도 생활시간 비교에 관한 한·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이 생활시간 공통분류항목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생활시간에 관한 국제비교에 있어 조사방법과 분류체계의 통일은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생활시간 국제비교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 실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조사방법을 동일하게 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한·일간 생활시간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일본과의 시간비교는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유교적 전통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 구조상 유사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산업사회의 진입시기나 산업화 정도, 사회규범이나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한 상이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활습성이나 생활양식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문화권과의 비교 못지 않게 서양문화권에 속한 나라와의 비교도 중요하다. 서양문화권에 속한 나라 중 특히 미국은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시간비교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미국은 기독교적 사상에, 우리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배경 및 역사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국민의 생활모습은 선진대국인 미국과 유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생활시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생활시간 국제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국가간 시간비교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 조사시기 및 행동분류방식 등의 연구방법을 일치시킨 공동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가족 전체, 즉 부부와 두 자녀의 시간배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인의 취업여부 및 근무형태는 부인 자신의 시간사용이나 가족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집단을 나누어 부부 및 자녀의 생활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국 생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생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미 양국 가정의 부부 및 자녀의 생활시간 분석은 양국 생활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가족의 생활시간 비교를 위해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취업주부, 시간제취업주부, 전업주부로 나누어 각 집단별 부부의 생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생활시간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미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 시간, 수입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한·미 양국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원돌보기, 구매 및 가정관리의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한·미 양국 자녀의 생활시간구조는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 시간, 학업 및 수입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은 우리 나라와 미국의 가족, 즉 자녀가 두 명인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를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교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자들의 지식과 연구방법을 교류함으로써 학문적인 성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시간 국제 비교의 의의

생활시간은 1990년대 이래 많은 나라에서 국가간 국민생활을 비교하는 중요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시간으로 복수의 국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시기와 1주일 중 휴일의 일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그 특성, 어느 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가간 생활시간의 비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국가를 공동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연구 결과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에 의한 대표적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헝가리 사회학자 Szalai(1972)에 의해 실시된 생활시간연구이다. 이는 '사회과학 연구와 자료조사를 위한 유럽협력센터(The European Coordination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in Social Sciences)'와 UN의 지원을 받아 1964~1966년에 걸쳐 12개국의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연구로, 처음부터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공동설계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였다(Pentland et als., 1999).

그러나 생활시간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의 대부분은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표집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법 및 코딩체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최근의 연구로 이기영·이연숙·김의숙·조희금(2001)에 의한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핀란드 4개국의 시간사용을 비교하였는데, 역시 2차 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비교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1980년대 중반 '생활 및 노동조건에

관한 유럽재단(The European Foundation o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에 의해 설립된 '국제생활시간 아카이브(MLTBA-Multinational Time Budget Archives)'가 자료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생활시간 자료를 공통의 분류체계로 재코드화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최근 국가간의 생활시간 공동조사는 특히 "국제생활시간학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수집, 코딩, 제시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생활시간을 통한 생활문화의 비교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럽통계연합(EUROSTAT)에서는 1995~1996년에 유럽지역의 생활시간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2 생활시간의 한·미 비교

생활시간 비교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정부에서 실시된 생활시간 조사가 발표된 이후, 국제비교에 대한 관심과 비교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비교의 경우 1993년 일본학자에 의해 '생활시간의 일·한 비교'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나라 KBS와 일본 NHK에서 1990년 각각 조사된 생활시간자료를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한·일 가정학자들이 연구방법을 일치시켜 공동으로 조사하여 시간사용을 비교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Amano, Matsubaguchi, Ito, Ito, Horiuchi, Saito, Mizunoya, Lee, Lee, Cho & Kim, 1998; Matsubaguchi, Amano, Amano, Horiuchi, Ito, Saito & Ito, 1997; 이기영 외 3인, 1996; 조희금·이기영·이연숙·김외숙, 2000).

이러한 일본과의 비교에서 전자의 경우, 두 나라의 전체적인 비교는 가능하였으나 양국의 생활행동의 분류와 조사 단위의 차이로 인해 개인 및 가정생활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였다. 후자의 경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국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의미있는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일본과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미국 가족과의 생활시간 사용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총 4편의 생활시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생활시간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시기가 다르고 연구자가 다르지만 한·미 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한국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많고 사회·문화적 시간이 적다는 사실이다. 24시간의 제약 하에서 수입노동이 증가하면 자유재량시간의 비중이 큰 사회·문화적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두경자(1995)의 연구로만 제한되지만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비교해본

다면 한국 취업주부의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 노동시간이 13:53분으로 미국의 12:18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미 양국간 부인의 생활시간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국가 (주부의 취업상태)	생활시간				
		생리적	수입노동	가사노동	사회·문화적	
장명옥* (1981)	한국	9:56	-	7:36	6:28	
	미국	9:28	-	8:20	6:12	
KBS* (1982)	한국	10:18	2:24	6:42	4:30	
	미국	11:00	1:00	6:54	5:54	
두경자 (1995)	한국	취업주부	8:48	7:51	6:02	1:36
		전업주부	11:07	-	8:46	4:14
	미국	취업주부	9:37	6:57	5:21	2:05
		전업주부	11:57	-	8:21	3:40
이기영 외 3인 (2001)	한국	10:17	3:24	2:18	5:01	
	미국	10:41	2:59	2:35	5:53	

* 장명옥(1981)과 KBS(1982)의 결과는 두경자(1995)에서 개인용

그러나 <표 1>에 제시된 연구를 통해서서는 가족의 다면적인 생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크게 2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 국제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조사를 통해 연구방법과 조사시점을 일치시킴으로 여타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경자(1995)의 연구에서는 한·미·일 공동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강남, 강북,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일본의 동경, 오오사카 등 6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177명, 미국 103명, 일본 10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 또한 1994년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일치시켰다. 그러나 이기영 외 3인(2001)의 경우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4개국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한국은 1999년도, 일본은 1996년도, 미국은 1994년도, 핀란드는 1987/1988년의 각기 다른 연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이 성인 혹은 주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활시간은 가족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게 되는데, 두경자(1995)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기영 외 3인(2001)의 연구에서는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두경자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자녀의 시간이, 이기영 외 3인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시간사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국제비교가 아닌 여타 생활시간 연구에서도 주로 성인 특히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생활시간의 성별 불평등성, 부부생활, 시간관리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녀는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녀의 경우 전체 생활시간이 아닌 특정 여가시간이나 가사협조 시간에 초점을 맞추거나(Lawrence, Tasker &

Babcock, 1983; Sanik & Stafford, 1986; Lawrence, Tasker & Wozniak, 1988), 전체시간에 대한 접근이라 하더라도 편부모 또는 양부모의 가족형태라는 한 변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Douthitt, 1991) 자녀의 생활시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시간구조를 밝힌 연구(김선희, 1996), 1981년과 1990년도 KBS 「국민생활시간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한 연구(이정덕, 1991), 전국을 대상으로 중·고·대학생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시간조사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도중수·정문성, 1993) 등이 있으나 가족원으로서의 자녀문제로 접근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와 같이 국제비교 연구에서의 여러 제한점을 극복한 한국과 미국과의 국제생활시간 비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활시간비교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가족의 다면적인 생활과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방법 및 조사시기, 연구대상 등을 일치시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한·미 양국의 공동연구자들은 각각 자료를 수집한 후 공동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연구방법에서 한국과 미국이 일치되는 점은 공동으로 설명하고, 양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방법을 달리 한 경우는 각각 서술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한국의 경우 자료수집을 위해 1회의 예비조사와 2회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계절에 따른 가족의 시간사용 변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봄-여름기간인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에, 2차 조사는 2000년 가을-겨울기간인 11월 13일부터 12월 3일에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시간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방학 기간과, 부인의 시간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추석기간을 피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한국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인 가족 즉, 남편과 부인,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기타가족원이 없는 가정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평균 가족원 수는 4인이고, 미국 연구에서도 4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의 비교를 위해 선정되었다. 기타 가족원의 거주는 가족의 시간사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통계를 위해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을 강북, 강서, 강동, 강남의 4대 광역으로 나누어서 인구비례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의 경우 연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수

퍼바이저가 10명의 면접원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대상 가정을 총 2회 방문하여 설문지와 시간일지표를 회수하였다. 1차 방문시에는 설문지와 시간일지표를 배부하여 설문지와 부인 및 자녀용 평일 시간일지표를 작성하게 하고, 남편용 설문지와 평일 및 휴일의 시간일지표, 부인 및 자녀용 휴일 시간일지표를 두고와 2차 방문시 이를 회수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중 응답이 부실한 27부를 제외하고 남편용과 부인용 설문지 각각 353부와 평일의 1,412부의 시간일지표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¹⁾. 회수된 353부 중 전업주부가족은 236가족, 취업주부가족은 117가족이다.

미국의 경우 계절적 변이를 고려하기 위해 1년에 걸쳐 설문지 및 시간일지표의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각 요일에 대해 동일한 수의 일지표를 수집하여 자녀가 방학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을 때의 시간사용이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유타주의 Salt Lake County, Iron County, Washington County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가 있으며 자녀가 2인인 가족이다. 자녀 연령은 가계의 시간사용 유형에 중요 예측변수라고 보고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5단계로 층화표집하였다. 총 210 가족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부실하게 응답한 10가족을 제외하고 평일에 해당하는 130부의 설문지와 130부의 시간일지표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시간사용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시간일지표(time diary)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기타 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과, 시간일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시간일지표와 질문지는 이미 연구가 완료된 미국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미국의 것을 기초로, 이를 우리 나라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시간일지표는 한국은 15분 단위로, 미국은 10분 단위로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24시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 평일 중 하루와 휴일 중 하루 총 이들의 시간이, 미국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요일이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조사하여, 한국은 4인가족이 각 2매씩 총 8매, 미국은 4인 가족이 1매씩 총 1매의 시간일지표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남편과 부인은 각자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자녀의 경우 자녀의 응답을 기초로 어머니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녀가 초등학교 미만이던 경우 한해서는 해당 자녀용 시간일지표는 작성하지 않았다. 총 30개로 분류된 생활행동을 중심으로 시간사용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한 번에 여러 활동을 중복해서 한 경우 중점적으로 한 활동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부인용의 경우

1) 평일과 휴일을 분리하여 분석을 하기에는 미국의 사례수가 적어 평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				미국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평균(만 세)	39.4		36.4		-		-	
교육수준	중등이하	3	0.8	9	2.5	평균 15.1(년)	평균 14.2(년)		
	고등	157	44.5	257	72.8				
	전문대	17	4.8	15	4.2				
	대졸이상	176	49.9	72	20.4				
	평균	15.1(년)		13.2(년)					
취업형태	전일제	351	99.4	98	27.8	123	97.7	19	14.6
	시간제	1	0.3	19	5.4	7	2.3	57	43.8
	전업주부	-	-	236	66.9	-	-	54	41.5
	무직	1	0.3	-	-	-	-	-	-
직업	전업주부	-	-	236	66.9	-	-	54	41.5
	판매·서비스·자영	137	38.8	76	21.5	19	15.0	7	5.4
	생산·단순노무	45	12.7	12	3.4	38	29.9	34	26.2
	사무	151	42.8	29	8.2	14	11.0	26	20.0
	전문·기술·행정관리	17	4.8	-	-	55	43.3	9	6.9
	무직·기타	3	0.8	-	-	1	0.8	-	-
연평균소득	2,400만원이하	111(31.4%)				-			
	2,401-3,000만원이하	77(21.8%)				-			
	3,001-3,600만원이하	66(18.7%)				-			
	3,600원초과	99(28.0%)				-			
	\$24,999이하	-				8(7.0%)			
	\$25,000-39,999	-				27(23.5%)			
	\$40,000-54,999	-				31(27.0%)			
	\$55,000-70,000	-				25(21.9%)			
\$70,000초과	-				24(20.9%)				
자녀	학교급별	초등학생	162(54.9)	133(45.1)	50(58.8)	35(41.2)			
		중·고등학생	93(50.5)	91(49.5)	29(51.8)	27(48.2)			
	연령(만 세)	11.3	11.7	10.7	10.8				

취업주부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취업주부에게는 취업관련 설문항목이 추가되고 취업관련 내용을 제외한 여타 설문내용은 전업주부와 동일하다.

분석을 위한 한·미 양국의 자료는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한 상태로 교환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시간사용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한·미간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미국 부인의 경우 한국의 부인보다 1년 높았으며 남편은 한국과 미국 남편이 평균 15.1년으로 같아 한국과 미국 부부의 교육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를 보면, 한국 부인의 경우 전업주부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취업한 33.1%중 대부분이 전일제였고, 시간제 취업은 5.4%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부인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43.8%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

<표 3>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평일 생활시간 비교

(단위 : 시간분)

생활시간구분		한국(N=353)						미국(N=130)					
		전일제 ¹⁾ (N=98)		시간제 ²⁾ (N=19)		전업주부 (N=236)		전일제 (N=19)		시간제 (N=57)		전업주부 (N=54)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생리적시간	수면및휴식	8:43	8:24	8:43	8:08*	8:37	9:03	8:46	8:11	8:02	9:14	8:27	9:14
	식사	1:54***	1:53***	1:58***	1:55***	2:02***	1:54***	0:20	0:36	0:41	0:51	0:40	1:02
소계		10:37***	10:17***	10:41***	10:03	10:39***	10:57*	9:05	8:46	8:43	10:05	9:07	10:17
가사노동시간		0:17**	3:24	0:11***	4:42***	0:06***	7:48	1:43	4:40	2:29	6:48	2:07	8:28
수입노동시간	학업	0:07	0:03	0:05	0:0	0:05	0:02	0:29	0:01	0:05	0:12	0:26	0:12
	노동 ³⁾	9:33	8:04	9:50	6:13***	9:39*	0:12	8:07	6:17	8:48	3:17	8:22	0:42
	이동	1:15**	0:49*	1:04**	0:50***	1:15***	0:01*	0:42	0:30	0:37	0:16	0:52	0:13
소계		10:55	8:56	10:58**	7:02***	10:59*	0:15*	9:18	6:47	9:31	3:45	9:40	1:07
사회·문화적시간		2:12	1:23*	2:10*	2:13	2:17	5:00**	3:27	3:28	3:03	3:04	2:50	3:46
기타시간 ³⁾		-	-	-	-	-	-	0:23	0:15	0:12	0:16	0:13	0:22

*p<.05 **p<.01 ***p<.001

- 1) 전일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 2) 한국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부업·직장을 위한 재택시간, 미국의 경우는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것임
- 3) 한국은 기타시간 항목 없음

하였으며 전일제는 14.6%, 전업주부 41.5%로 한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남편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전일제 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남편의 시간제 취업이 한국에 비해 약간 높았다. 한·미 양국부부의 직업을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 부인은 판매·서비스·자영직에, 미국 부인은 생산·단순노무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미국 부인이 우리 나라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12%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남편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판매·서비스·자영직이었는데 비해 미국 남편은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조사대상에 미취학자녀도 포함되었으나 시간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취학자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미 양국의 자녀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한국 479명, 미국 141명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한국의 경우 남자가 53.2%(255명), 여자가 46.8%(224명)이고 미국의 경우 남자가 56.0%(79명), 여자가 44.0%(62명)로 양국의 남녀비율이 유사하다. 집단별 분류에 있

어서 한국은 초등학교생이 61.6%(295명), 중·고등학생이 38.4%(184명)이고, 미국은 초등학교생이 60.3%(85명), 중·고등학생이 38.7%(56명)로서 양국의 집단별 구성비도 약 6:4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 비교

1) 부부의 영역별 생활시간

한·미 양국 부부의 평일 생활시간을 보면 <표 3>과 같이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집단간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생리적 시간을 보면 시간제 취업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부부의 생리적 시간이 미국 부부의 생리적 시간보다 유의하게 길게 나타나고 있다. 생리적 시간 중 수면 및 휴식시간을 보면 미국 가정의 시간제 취업주부가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보다 1시간 6분 길며 그 차이가 유의하다. 그 밖의 집단에서는 양국 부부간에 수면 및 휴식시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수면 및 휴식시간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전업주부가 9시간 3분 정도로 가장 길며, 시간제 취업주부가 8시간 8분으로 가장 짧다. 미국 가정의 경우도 전업주부가

9시간 14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수면 및 휴식시간이 가장 긴데, 시간제 취업주부의 수면 및 휴식시간도 9시간 14분 정도로 전업주부와 같다. 한편 미국 가정에서 가장 짧은 수면 및 휴식 시간을 갖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으로 그들의 수면 및 휴식시간은 8시간 2분이다. 이는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수면 및 휴식 시간이 8시간 43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길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한·미 양국 부부의 수면 및 휴식 시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 부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인이 취업한 경우 전일제든 시간제든 남편의 수면 및 휴식시간이 부인보다 긴 반면, 미국은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에만 남편의 수면시간이 부인보다 길다.

식사시간은 한국 가정의 부부가 미국 가정의 부부에 비하여 모든 집단에서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국 부부의 생리적 시간의 차이는 식사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집단별 식사시간의 길이가 2시간 정도로 부부집단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일 근로자 가구 부부의 생활 시간을 조사한 선행연구(이기영 외 3인, 1996)나 통계청(2000)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 조사에서 성인의 평균 식사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난 데 비하여 대체로 긴 수준이다. 이는 이들 연구간에 조사대상자와 조사시기,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식사시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부부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이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한국 부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시간은 미국 Maryland 대학 사회조사 센터에서 실시한 'EPA National Time Use Survey 1992~1994' 조사자료(통계청, 2001)에 나타난 성인 요일 평균 식사시간인 1시간 9분에 비하여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양국 부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집단에서 미국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길며 모든 남편 집단, 그리고 시간제 취업주부에 있어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전업주부로서 7시간 48분이며 취업주부보다 3시간~4시간 30분 정도 길었다. 부인에 비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6~17분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어 8시간 28분이며 이는 전일제 취업주부보다는 3시간 가까이, 시간제 취업주부보다는 1시간 40분 정도 긴 시간이다. 한편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제 취업주부를 둔 남편이 가장 길어 2시간 29분이고 예상외로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아 1시간 43분이었다.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간에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부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남편이 미국 남편에 비하여 가사노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다. 즉 한국 남편 중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인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겨우 17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하여 미국 가정의 남편은 가장 짧게 가사노동을 하는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 경우도 1시간 43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양국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의 경우도 한국 가정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미국 가정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주부만으로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42분인데 비하여 미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 48분으로 그 차이는 2시간을 넘고 있다.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한국의 남편보다 긴 것은 동서양의 문화적 전통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나 미국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한국 부인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관한 선행연구(NHK 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 1995; 통계청, 2001)에서 미국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비교국 중 가장 짧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이 연구의 미국측 응답자들이 핵가족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가족관을 갖고 있는 모르몬교도가 70%정도를 차지하는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세부 영역에 따른 시간의 차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수입노동시간은 학업, 노동, 이동으로 분류해서 양국 가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노동시간을 보면 전업주부만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한국 가정의 부부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은 9시간 33분에서 9시간 50분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 미국 남편은 8시간 7분에서 8시간 48분의 분포를 보여 집단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한국 남편의 취업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한국 부인의 취업노동시간이 미국의 취업주부보다 각각 1시간 47분, 2시간 56분 길다. 취업노동시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시간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인데, 그 중에서도 시간제 취업주부의 취업노동시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취업노동시간은 6시간 13분인데, 미국의 경우는 3시간 17분으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길다.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한국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이 미국 남편에 비하여 1시간 17분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 시간은 양국 가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 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업부부만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한국 가정 부부의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국 가정 부부의 이동시간이 미국 부부보다 10~30여분 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표집 대상이 된 서울시가 미국 유타주의 중소 도시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크고,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이 더 큰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동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 수입노동시간에 있어 양국의 시간제 취업 주부와 남편, 전업주부와 남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가정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국 가정 부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전일제 취업주부,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 전업주부였다. 한국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1시간 23분, 미국 부인은 3시간 28분으로 미국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2시간 이상 길다.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 경우는 한국의 남편이 2시간 10분, 미국의 남편은 3시간 3분으로 약 1시간 가량 미국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만은 한국 부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미국 부인보다 길며 그 차이는 1시간 14분이다. 한편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 한국은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부인보다 50분 정도 긴 데 비해 미국은 부부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부부의 영역별 생활시간 행위자율과 행위자의 영역별 생활시간

다음의 <표 4>는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양국 부부 생활시간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생활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생리적 시간의 경우 수면 및 휴식 시간은 양국 부부 모두 행위자율이 100%인데 비하여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은 양

국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부부 집단의 식사시간 행위자비율은 집단별로 68.4~94.4%이고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29분~1시간 6분으로 나타나 100%의 행위자 비율과 1시간 53분~2시간 2분의 행위자 평균시간을 보인 한국 부부 집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은 식사시간의 행위자율이 68.4%이고 행위자 평균시간이 29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국 부부에 있어 식사시간의 행위자 비율뿐 아니라 행위자 평균시간이 짧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경우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예를 들면 햄버거 혹은 샌드위치) 일을 병행할 경우, 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무 중의 식사를 노동시간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외식 혹은 친구나 동료들과의 식사를 여가활동으로 생각하여 사회·문화적 시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한·미 양국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행위자율은 집단별로 8.1%~21.4%, 행위자 평균시간은 53분~1시간 17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위자율은 전업주부 남편이 가장 짧으며, 시간제와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행위자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한편

<표 4>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평일 생활시간의 행위자평균과 행위자율 비교

(단위 : 시간:분(행위자율))

생활시간 구분		한국(N=353)						미국(N=130)					
		전일제 ¹⁾ (N=98)		시간제 ²⁾ (N=19)		전업주부 (N=236)		전일제 (N=19)		시간제 (N=57)		전업주부 (N=54)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생리적 시간	수면 및 휴식	8:43(100.0)	8:24(100.0)	8:43(100.0)	8:08(100.0)	8:37(100.0)	9:03(100.0)	8:46(100.0)	8:11(100.0)	8:02(100.0)	9:14(100.0)	8:27(100.0)	9:14(100.0)
	식사	1:54(100.0)	1:53(100.0)	1:58(100.0)	1:55(100.0)	2:02(100.0)	1:54(100.0)	0:29(68.4)	0:40(89.5)	0:52(78.9)	0:56(91.2)	0:46(87.0)	1:06(94.4)
소계		10:37(100.0)	10:17(100.0)	10:41(100.0)	10:03(100.0)	10:39(100.0)	10:57(100.0)	9:05(100.0)	8:46(100.0)	8:43(100.0)	10:05(100.0)	9:07(100.0)	10:17(100.0)
가사노동 시간		1:17(21.4)	3:32(95.9)	0:53(21.1)	4:42(100.0)	1:13(8.1)	7:48(100.0)	2:11(78.9)	4:40(100.0)	2:57(84.2)	6:48(100.0)	2:11(90.7)	8:28(100.0)
수업 노동 시간	학업	1:28(8.2)	1:30(3.1)	1:30(5.3)	0:0(0.0)	1:50(4.2)	1:56(1.7)	4:35(10.5)	0:10(5.3)	2:35(3.5)	2:45(7.0)	3:17(13.0)	1:33(13.0)
	노동 ³⁾	9:33(100.0)	8:25(95.9)	9:50(100.0)	6:33(94.7)	9:47(98.7)	3:32(5.5)	9:04(89.5)	7:57(70.9)	9:17(94.7)	5:03(64.9)	9:25(88.9)	3:24(20.4)
	이동	6:20(93.9)	0:58(85.7)	1:12(89.5)	0:59(84.2)	1:21(92.4)	0:56(1.7)	0:50(84.2)	0:52(57.9)	0:46(80.7)	0:33(49.1)	1:00(87.0)	0:58(22.2)
소계		10:55(100.0)	9:19(95.9)	10:58(100.0)	7:26(94.7)	11:07(98.7)	3:02(8.1)	10:24(89.5)	8:36(78.9)	10:02(94.7)	5:20(70.2)	10:14(94.4)	3:19(33.3)
사회·문화적 시간		2:38(83.7)	1:57(71.4)	2:25(89.5)	2:38(84.2)	2:36(87.7)	5:03(99.2)	4:22(78.9)	3:40(94.7)	3:24(89.5)	3:22(91.2)	3:34(79.6)	3:59(94.4)
기타시간 ³⁾		-	-	-	-	-	-	1:10(21.1)	1:15(21.1)	1:09(31.5)	1:48(21.1)	0:50(24.6)	1:41(13.0)

1) 전일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2) 한국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부업·직장을 위한 재택시간, 미국의 경우는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것임
 3) 한국은 기타시간 항목 없음

미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행위자 비율은 79%~91%, 행위자 평균시간은 2시간 11분~2시간 57분으로 한국 남편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도 훨씬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2배 이상 된다. 가장 낮은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보인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도 79%가 가사노동에 참여하여 2시간 11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미국 가정의 대다수 남편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 부인의 경우에 가사노동시간 행위자율은 비슷하나 행위자 평균시간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부인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국 가정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가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 부부의 수입노동 시간중 노동시간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부부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남편의 노동시간 행위자율은 모든 집단에서 100%에 가깝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9시간 33분~50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남편의 노동시간 행위자 비율은 89%~95%이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9시간 4분~25분이었다. 부인의 노동시간 경우에서도 한국의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주부가 미국의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주부에 비하여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 전체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가 3시간 가량 길었는데, 행위자 평균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만 길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미국 시간제 취업주부의 노동시간 행위자 비율이 각각 95%, 65%로 미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노동시간 행위자 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동시간의 경우는 전일제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부부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높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의 조사지역의 크기 차이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시간의 행위자율을 보면 한국의 남편은 집단별로 84~90%이고 미국의 남편은 79~90%로 유사하다. 그런데 행위자 평균시간을 보면 한국 남편은 2시간 25분~2시간 38분, 미국 남편의 경우는 3시간 24분~4시간 22분으로 미국 남편의 행위자 평균시간이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부인을 비교해보면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에 미국 부인의 행위자율이 한국 부인보다 각각 23.3%, 7.0%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각각 1시간 43분, 44분 길게 나타났다. 단 전일제주부의 경우는 한국 부인의 행위자율이 미국 부인보다 5% 정도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은 1시간 가량 더 길게 나타났다. 한·미 양국 부간에 행위자율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양국간의 사회·문화적 시간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활동의 참여 여부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참여한 시간량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한·미 양국의 전반적인 생활시간 사용실태와 행위자 비율을 살펴봤는데 그 결과 생리적 시간은 식사시간의 차

이로 인하여 한국 가정의 부부가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미국 가정의 부부가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양국 남편간에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미국 가정의 남편은 대부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시간도 한국의 남편에 비하여 훨씬 길게 나타났다. 또 취업노동 시간과 이동시간은 한국의 부부가 전반적으로 길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미국 부부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가정의 생활시간 사용실태에 따라 부부의 생활 모습을 유추해 보면 한국 가정의 남편은 취업노동과 취업을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나 가사노동에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활동에도 미국 가정의 남편에 비하여 적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가정의 남편은 취업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1/4 가량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도 한국 가정의 남편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취업노동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정의 부인은 미국 가정의 부인에 비하여 가사노동과 사회·문화적 활동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취업과 취업을 위한 이동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미 양국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1) 부부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한·미 양국 가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부인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한국의 부인들은 미국의 부인들에 비해 식생활관리와 위생생활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의 부인들은 주생활관리, 가족원 돌보기 및 구매와 가정관리에 한국의 부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가사노동 영역에서 미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식생활관리 영역에서는 음식만들기 및 설거지 모두에서 한국 부인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한국의 경우 전일주부는 평일 평균 2시간 33분, 시간제취업주부는 1시간 55분, 전일제취업주부는 1시간 36분을 식생활관리에 소비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각각 1시간 17분, 1시간 7분, 57분을 소비하고 있어서, 한국 부인들이 소비하는 식생활관리시간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음식문화나 식사문화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짧은 식생활관리 시간은 간편한 식사로 이어져서 식사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인의 식사시간은 일본이나 한국 등 동양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핀란드 등 유럽에 비해서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기영 외 3인, 2001).

부인의 주생활관리시간은 미국의 부인이 길었는데, 특히 청소시간이 한국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방의 수나 주택의 규모, 주택의 유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방의 수가 많고²⁾, 주택의 규모가 크며, 서울에

<표 5>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간분)

가사노동시간구분		한국(N=353)						미국(N=130)					
		전일제 ¹⁾ (N=98)		시간제 ²⁾ (N=19)		전업주부 (N=236)		전일제 (N=19)		시간제 (N=57)		전업주부 (N=54)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식생활관리	음식만들기	0:02	0:59	0:00	1:15	0:00	1:31	0:13	0:45	0:10	0:49	0:08	0:55
	설거지	0:01	0:37	0:00	0:40	0:00	1:02	0:03	0:12	0:03	0:18	0:02	0:22
소계		0:02	1:36	0:00	1:55	0:00	2:33	0:16	0:57	0:12	1:07	0:11	1:17
주생활관리	청소	0:01	0:25	0:02	0:29	0:00	0:59	0:07	1:04	0:05	1:10	0:08	1:28
	집안유지	0:00	0:06	0:00	0:06	0:01	0:12	0:18	0:16	0:38	0:12	0:22	0:24
소계		0:01	0:31	0:02	0:36	0:01	1:11	0:25	1:20	0:43	1:23	0:29	1:52
의생활관리	세탁및의류정리	0:01	0:15	0:00	0:32	0:00	0:47	0:06	0:07	0:04	0:22	0:02	0:28
	의류관련만들기 및수선	0:00	0:03	0:00	0:09	0:00	0:04	0:00	0:01	0:01	0:03	0:00	0:00
소계		0:01	0:18	0:00	0:41	0:00	0:51	0:06	0:08	0:05	0:24	0:02	0:28
가족원 돌보기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	0:02	0:16	0:06	0:10	0:01	0:47	0:03	0:35	0:13	0:57	0:12	1:12
	자녀 학습지도 및 놀이주기	0:10	0:13	0:03	0:32	0:03	0:46	0:22	0:45	0:48	1:35	0:48	1:53
	남편부모관련일 ²⁾	0:00	0:06	0:00	0:06	0:00	0:14	-	-	-	-	-	-
소계		0:12	0:35	0:10	0:48	0:05	1:47	0:25	1:21	1:01	2:31	1:00	3:05
구매 및 가정관리	시장보기	0:01	0:23	0:00	0:43	0:00	1:04	0:12	0:28	0:11	0:47	0:07	1:09
	가정관리	0:00	0:02	0:00	0:00	0:00	0:23	0:20	0:26	0:17	0:37	0:18	0:37
소계		0:01	0:24	0:00	0:43	0:00	1:27	0:32	0:54	0:28	1:24	0:25	1:46
계		0:17	3:24	0:11	4:42	0:06	7:48	1:43	4:40	2:29	6:48	2:07	8:28

*p<0.05 **p<0.01 ***p<0.001

- 1) 전일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 2)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항목임

비해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미국 가정의 주생활관리시간이 한국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업주부와 전일제취업주부의 의생활관리시간은 미국이 한국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특히 전업주부의 세탁관련 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세탁방법이나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주된 세탁방법이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과 탈수를 한 후 빨랫줄에 빨래를 널었다가 마르면 건어서 개키는 과정이라면, 대부분

의 미국 가정에서는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므로 빨래를 널고 건는 과정이 생략된다. 그러므로 이런 세탁방법의 차이가 세탁시간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³⁾.

전업주부와 시간제취업주부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미국 가정의 부인들이 훨씬 길었다. 특히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에 소비하는 시간보다는 자녀 학습지도 및 놀이주기 시간에서 차이가

2) 평균 방의 수는 한국의 경우 2.6개, 미국의 경우 10.1개로 나타났다.

3) 본 조사 결과 미국은 대다수의 가정(98.5%)에서 의류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빨래를 대부분 자연건조하는 우리 나라와 세탁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졌다. 즉 한국 부인들은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체적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미국 부인들의 경우는 신체적 돌보기보다는 학습지도 및 놀이주기에 소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 가족원 돌보기 시간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일제취업주부 및 시간제취업주부의 경우 미국 주부들의 구매 및 가정관리시간이 한국부인들에 비해 길다. 이 가운데 시장보기 시간보다는 가정관리 시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편들은 식생활관리에 평일 평균 11분~16분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비해 한국 남편들은 전일제취업주부의 남편만이 평균 2분 정도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다. 주생활관리 역시 미국의 남편들은 하루 평균 25분 이상을 소비하는데 비해, 한국은 2분 미만을 소비하고 있다. 의생활관리 영역은 한국이나 미국 모두 남편들의 시간소비가 가장 적었다.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은 가족원 돌보기이다. 미국의 경우는 전일제취업주부의 남편들 보다 전업주부나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들의 자녀 돌보기 시간이 길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전일제취업주부 남편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이 가장 길고(12분), 전업주부나 시간제취업주부 남편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10분 이하로 나타났다. 구매 및 가정관리시간 역시 미국 남편들이 25분~30분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비해 한국의 남편들은 1분 미만의 시간만을 소비하고 있다.

2) 부부의 가사노동 행위자율과 행위자의 가사노동시간

<표 6>에서 한·미 양국 가족의 가사노동 행위자율과 행위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한·미 양국 모두 부인들은 90%이상이 식생활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인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한국부인들이 미국에 비해 행위자의 식생활관리시간이 길다. 주생활관리 행위자율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업주부가 가장 높고, 시간제취업주부, 전일제취업주부의 순이다. 한국과 미국 부인들의 주생활관리 행위자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참여자의 주생활관리 시간은 미국이 길다. 의생활영역은 한국 부인들의 행위자율이 높고 참여자의 의생활관리시간도 길다. 가족원돌보기는 미국부

<표 6>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의 행위자평균과 행위자율 비교

통계청 (단위 : 시간:분%)

가사노동시간구분		한국(N=353)						미국(N=138)					
		전일제 ¹⁾ (N=98)		시간제 (N=19)		전업주부 (N=236)		전일제 (N=19)		시간제 (N=57)		전업주부 (N=54)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식생활	음식만들기	1:00(3.1)	1:11(83.7)	0:00(0.0)	1:19(94.7)	0:30(0.8)	1:37(94.5)	0:31(42.1)	0:50(89.5)	0:30(31.6)	0:53(93.0)	0:22(37.0)	0:57(96.3)
	설거지	1:00(1.0)	0:45(80.6)	0:00(0.0)	0:50(78.9)	0:00(0.0)	1:07(91.9)	0:17(15.8)	0:26(47.4)	0:18(14.0)	0:34(52.6)	0:22(11.1)	0:36(61.1)
소 계		1:20(3.1)	1:43(92.9)	0:00(0.0)	2:01(94.7)	0:30(0.8)	2:35(98.7)	0:33(47.4)	1:04(89.5)	0:31(38.6)	1:09(96.5)	0:26(40.7)	1:17(100.0)
주생활관리	청소	1:00(0.9)	0:46(54.1)	0:30(5.3)	0:46(63.2)	0:30(0.4)	1:08(85.6)	0:43(15.8)	1:41(63.2)	0:47(10.5)	1:48(64.9)	1:10(11.1)	1:46(83.3)
	집안유지	0:00(0.0)	0:56(11.2)	0:00(0.0)	2:00(5.3)	1:00(0.8)	1:07(18.2)	1:25(21.1)	0:50(31.6)	1:53(33.3)	0:43(28.1)	1:17(27.8)	1:21(29.6)
소 계		1:00(1.0)	0:53(58.2)	0:30(5.3)	0:52(68.4)	0:50(1.3)	1:20(88.6)	1:07(36.8)	1:56(68.4)	1:56(36.8)	1:55(71.9)	1:25(33.3)	2:12(85.2)
의생활관리	세탁및의류정리	1:00(1.0)	0:53(27.6)	0:00(0.0)	1:02(52.6)	0:00(0.0)	1:12(64.8)	0:37(15.8)	0:20(36.8)	2:00(3.5)	0:45(49.1)	0:13(11.1)	1:03(44.4)
	의류관련만들기 및수선	0:00(0.0)	0:55(6.1)	0:00(0.0)	0:41(21.1)	0:00(0.0)	0:55(7.2)	0:00(0.0)	0:20(5.3)	0:20(3.5)	0:23(10.5)	0:10(1.9)	0:10(1.9)
소 계		1:00(1.0)	0:55(32.7)	0:00(0.0)	1:05(63.2)	0:00(0.0)	1:14(68.2)	0:37(15.8)	0:23(36.8)	1:10(7.0)	0:45(54.4)	0:13(13.0)	1:04(44.4)
가족원돌보기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	0:38(4.1)	1:09(23.5)	1:00(10.5)	1:05(15.8)	1:23(1.7)	2:01(39.0)	0:30(10.5)	2:14(26.3)	0:45(29.8)	1:27(64.9)	0:39(29.6)	1:40(72.2)
	자녀 학습지도 및 놀이주기	1:21(12.2)	1:13(18.4)	1:00(5.3)	1:15(42.1)	1:06(4.7)	1:42(45.3)	0:47(47.4)	0:57(78.9)	1:37(49.1)	2:03(77.2)	1:19(61.1)	2:16(83.3)
	남편부도관련일 ²⁾	0:30(1.0)	1:17(7.1)	0:00(0.0)	0:40(15.8)	0:30(0.8)	1:34(14.4)	-	-	-	-	-	-
소 계		1:12(16.3)	1:26(40.8)	1:00(15.8)	1:42(47.4)	1:14(6.4)	2:25(73.7)	0:53(47.4)	1:36(84.2)	1:45(57.9)	2:49(89.5)	1:25(70.4)	3:24(90.7)
구매 및 가정관리	시장보기	0:45(2.0)	0:53(42.9)	0:00(0.0)	0:58(73.7)	0:00(0.0)	1:22(78.4)	0:55(21.1)	1:16(36.8)	1:11(15.8)	1:19(59.6)	0:54(13.0)	1:49(63.0)
	가정관리	0:15(1.0)	1:15(2.0)	0:00(0.0)	0:00(0.0)	1:15(0.4)	1:13(31.4)	1:16(26.3)	1:03(42.1)	1:09(24.6)	1:24(43.9)	0:58(31.5)	1:20(46.3)
소 계		0:35(3.1)	0:56(42.9)	0:00(0.0)	0:58(73.7)	1:15(0.4)	1:46(82.6)	1:07(47.4)	1:19(68.4)	1:17(36.8)	1:51(75.4)	1:02(40.7)	2:23(74.1)

1) 전일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2)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항목임

인들의 행위자율이 높고 시간도 길다. 미국 부인들은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80%이상의 행위자율을 보이는데 비해 한국의 취업주부들은 50% 미만의 부인들만이 가족원돌보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행위자율은 가족원돌보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6% 미만의 비율을 보여 가사노동시간도 적지만,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남편들은 의생활관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30% 이상의 행위자율을 보여서 한국보다 높았다.

3) 부부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배분 비율

총가사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가사노동의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영역별 시간배분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표 7>에서 한·미 양국 부인들의 가사노동영역별 시간배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부인들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은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식생활관리시간의 비중이 증가했다. 전일제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총 가사노동시간이 적는데, 그 가사노동시간의 절반 가까운 47%를 식생활관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직업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부담을 가지는 전일제취업주부들은 자신의 적은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생활필수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식생활관리에 시간배분을 집중함으로써 시간압박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부인들의 경우는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일제취업주부의 식생활관리시간 비율은 전업주부나 시간제취업주부보다는 많으나, 전체 가사노동시간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전업주부와 시간제취업주부는 가족원돌보기 시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전일제취업주부는 가족원돌보기와 주생활관리시간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과 미국 주부들의 가사노동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의 주부들이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식생활관리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데 비해, 미국의 주부들은 가족돌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그 다음은 주생활관리 영역에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배분 비율의 경우, 한국 가정의 남편들은 부인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시간의 대부분을 가족원돌보기에 소비하고 있다. 전일제취업주부 남편에 비해 전업주부와 시간제취업주부의 남편은 더 심한 가사노동시간 배분의 편중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은 80% 이상의 시간을 가족원돌보기에 소비하고 10% 내외의 시간을 주생활관리에 소비하며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는 거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 전일제취업주부의 남편은 가족원돌보기의 비중이 줄고 식생활관리 영역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 남편들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20분 미만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자녀돌보기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남편들은 가사노동 가운데 여가적인 성격이 강한 일에만 참여하고 있으므로 생활필수적인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분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 남편들 역시 전체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가족원돌보기에 소비하는 비중이 높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각 영역별로 고르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전업주부나 시간제취업주부의 남편들은 가사노동시간의 약 절반 정도를 가족원돌보기에 소비하는데 비해, 전일제취업주부의 남편은 구매 및 가정관리에 31%, 가족원돌보기 및 주생활관리에 각각 25%, 24%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으며 식생활관리에 15%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전일제취업주부 남편들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적지만,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배분은 더 균형 있게 하고 있었다.

<표 7>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가사노동영역별 시간배분 비율

(단위 : %)

가사노동시간 구분	한국(N=353)						미국(N=130)					
	전일제 ^{b)} (N=98)		시간제 ^{b)} (N=19)		전업주부 (N=236)		전일제 (N=19)		시간제 (N=57)		전업주부 (N=54)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식생활관리	14.5	47.1	0.0	40.6	5.1	32.7	15.3	20.3	8.1	16.4	8.4	15.1
주생활관리	3.6	15.0	14.4	12.6	10.2	15.1	23.9	28.4	28.9	20.2	23.2	22.1
의생활관리	3.6	8.8	0.0	14.6	0.0	10.8	5.6	3.0	3.4	6.0	1.3	5.7
가족원 돌보기	71.5	17.2	85.6	17.1	79.7	22.8	24.5	28.8	40.9	37.0	47.1	36.4
구매 및 가정관리	6.7	11.9	0.0	15.1	5.1	18.6	30.6	19.4	18.8	20.5	20.1	20.8
계	99.9	100.0	100.0	100.0	100.1	100.0	99.9	99.9	100.1	100.1	100.1	100.1

1) 전일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3. 한·미 양국 자녀의 생활시간 비교

1) 자녀의 영역별 생활시간

한·미 양국 자녀의 평일 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 시간, 학업 및 수입노동 시간⁴⁾,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8>에서 크게 분류한 생활시간 평균의 t-test 결과를 보면 생리적 시간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 자녀와 미국 자녀의 시간사용은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자녀들이 서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영역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리적 시간에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자녀가 미국 자녀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자녀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나타내는 집단은 여자 중·고등학생으로 평일 평균 8시간 22분이고, 가장 많은 집단은 남·여 초등학생으로 9시간 59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집단이 남자 중·고등학생으로 8시간 51분이고, 가장 많은 집단은 남자 초등학생으로 10시간 27분이다. 수면 및 휴식에서 한국

과 미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여자 중·고등학생으로서 이 두 집단간에는 하루 평균 1시간 3분의 차이를 보인다.

수면 및 휴식과는 반대로 식사 시간은 한국 자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다. 한국의 자녀들은 네 집단 모두 평일 하루평균 100분 이상을 식사에 사용하는 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네 집단 모두 1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인의 식사시간은 긴 편이고 미국인은 식사시간이 짧은 특징이 밝혀진 바 있는데 (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 1995; 통계청, 2001), 자녀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인다.

수면 및 휴식과 식사로 구성된 생리적 시간 전체를 보면 양국이 소영역별로 반대의 시간배분 경향을 보임에 따라 각각의 효과가 상쇄되어 전반적으로 볼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은 양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에 따라 평균 1~2분에 불과하나 미국 학생의 경우 평일평균 1시간 26분~2시간 9분을 보이고 있다. 미국 11개주의 도시와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표 8> 자녀의 성별·연령별 평일 생활시간 비교

(단위 : 분)

생활시간구분		한 국				미 국			
		남		여		남		여	
		초등 (N=162)	중·고등 (N=93)	초등 (N=133)	중·고등 (N=91)	초등 (N=50)	중·고등 (N=29)	초등 (N=35)	중·고등 (N=27)
생리적시간	수면 및 휴식	9:59	8:34	9:59	8:22 ***	10:27	8:51	10:21	9:25
	식사	1:52 ***	1:49 ***	1:49 ***	1:48 ***	0:56	0:41	0:56	0:41
소계		11:51	10:23	11:48	10:10	11:23	9:32	11:18	10:41
가사노동시간		0:01 ***	0:02 ***	0:02 ***	0:02 ***	1:45	1:29	2:09	1:26
학업 및 수입노동시간	학업	8:23 ***	11:02 ***	8:16 ***	11:04 ***	3:22	3:55	3:19	4:10
	노동	0:00	0:00 **	0:00	0:00 *	0:01	1:08	0:30	1:27
	이동	0:46 ***	0:59 ***	0:47 ***	1:03 ***	0:07	0:24	0:20	0:14
소계		9:09 ***	12:02 ***	9:03 ***	12:07 ***	3:30	5:27	4:09	5:51
사회·문화적시간		2:59 ***	1:34 ***	3:08 ***	1:41 ***	6:23	7:19	5:59	5:27
기타시간		-	-	-	-	0:56	0:12	0:22	1:08
계		24:00	24:00	24:00	24:00	23:57	23:58	23:58	23:57

*p<.05 **p<.01 ***p<.001

4) 부부의 경우는 이 영역을 '수입노동시간'으로 명명하였으나 자녀의 경우는 이 영역의 세부 항목 중 학업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어 '학업 및 수입노동 시간'으로 명명하였다.

에서 청소년의 일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11분이고 (Lawrence & Tasker, 1983), 우리 나라 학생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이 14분으로 밝혀진 점(통계청, 2000)도 한·미 양국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업 및 수입노동 시간을 학업, 노동, 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학업의 경우 네 집단 모두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시간이 2.5~3.5배 많다. 미국 학생의 경우 평일 평균 3시간 19분(여자 초등학생)에서 4시간 10분(여자 중·고등학생)까지의 분포를 보이는데 비하여 한국 학생의 경우 8시간 16분(여자 초등학생)에서 11시간 4분(여자 중·고등학생)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각국 내에서 집단별 시간을 비교하면 여자 초등학생의 학업시간이 가장 짧고 여자 중·고등학생의 시간이 가장 긴 점은 양국에서 동일하나 국내에서의 집단별 시간량의 차이는 많지 않은 편이다.

수입을 위한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 학생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수입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가장 적은 남자 초등학생이 1분이고 가장 많은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시간 27분이나 된다.

이동시간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집단별 평균이 46분~1시간 3분인데 비하여 미국 학생은 7~24분으로 모든 집단에서 우리나라 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이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지역의 차이 및 각국의 교통제도, 취학거리 및 학원수강 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학업, 노동, 이동을 종합해 전체 학업 및 수입노동시간으로 묶어 보면, 미국 학생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이 한국 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은 경향이 있지만, 한국 학생의 경우 학업과 이동시간이 매우 큰 차이로 더 많기 때문에 전체 학업 및 수입노동시간은 한국 학생이 더 많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체 학업 및 수입노동시간과 반대로 미국 학생이 더 많고, 그 차이는 1.9배(여자 초등학생)~4.7배(남자 중·고등학생)이다. 한국 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남자 중·고등학생으로서 평일 평균 1시간 34분이고, 가장 많은 남자 초등학생도 하루 평균 3시간이 되지 않는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가장 적은 여자 중·고등학생도 5시간 27분이며 가장 많은 남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7시간 19분이다. 한국 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많은 초등학생도 학업시간에 비하여 36~38%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학업시간의 14~15%에 불과하나 미국 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이 학업시간에 비하여 1.3배 이상 더 많으며 남학생의 경우 약 2배가 된다.

2) 자녀의 영역별 생활시간 행위자율과 행위자의 영역별 생활시간

다음의 <표 9>는 자녀의 성별·연령별 평일 생활시간의 행위자 평균과 행위자율을 비교한 것이다.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행위자의 비율뿐 아니라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크게 다르다. 한국 학생의 경우 행위자율이 2~4%에 불과하고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하루평균 1시간 정도(50분~1시간 15분)인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행위자율이 74~89%이고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1시간 57분~2시간 26분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자녀의 가사노동참여가 일반적이지 못함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자녀가 가사노동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업 및 수입노동시간을 보면 한국의 경우 학교에 가는 평일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업행위율이 모든 집단에서 100%인데,

<표 9> 자녀의 성별·연령별 평일 생활시간의 행위자평균과 행위자율 비교

(단위 : 분, %)

생활시간구분		한 국				미 국			
		남		여		남		여	
		초등 (N=162)	중·고등 (N=93)	초등 (N=133)	중·고등 (N=91)	초등 (N=50)	중·고등 (N=29)	초등 (N=35)	중·고등 (N=27)
생리적시간	수면 및휴식	9:59(100.0)	8:34(100.0)	9:59(100.0)	8:22(100.0)	10:27(100.0)	9:10(96.6)	10:21(100.0)	9:25(100.0)
	식사	1:52(100.0)	1:49(100.0)	1:49(100.0)	1:48(100.0)	0:57(98.0)	0:44(93.1)	0:56(100.0)	0:48(85.2)
소계		11:51(100.0)	10:23(100.0)	11:48(100.0)	10:10(100.0)	11:23(100.0)	9:32(100.0)	11:18(100.0)	10:06(100.0)
가사노동시간		0:55(1.9)	0:50(3.2)	0:54(3.8)	1:15(2.2)	2:08(82.0)	1:43(86.2)	2:26(88.6)	1:57(74.1)
수입노동 시간	학업	8:23(100.0)	11:02(100.0)	8:16(100.0)	11:04(100.0)	8:00(48.0)	7:33(51.7)	7:16(45.7)	8:01(51.9)
	노동	0:00(0.0)	0:30(1.1)	0:00(0.0)	0:00(0.0)	0:35(4.0)	2:59(37.9)	3:32(14.3)	4:55(29.6)
	이동	0:52(88.9)	0:59(100.0)	0:50(94.0)	1:04(98.9)	0:21(34.0)	0:44(55.2)	0:53(37.1)	0:27(51.9)
소계		9:09(100.0)	12:02(100.0)	9:03(100.0)	12:07(100.0)	6:45(52.0)	7:11(75.9)	7:16(57.1)	8:19(70.4)
사회·문화적시간		3:02(98.1)	1:57(80.6)	3:09(99.2)	2:12(76.9)	6:31(98.0)	7:35(96.6)	5:59(100.0)	5:39(96.3)
기타시간		-	-	-	-	4:14(22.0)	1:25(13.8)	1:38(22.9)	3:23(33.3)

미국의 경우 집단에 따라 46~5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는 자녀가 학교수업을 하는 평일에 조사가 수집된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일년에 걸쳐 평일 중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방학이나 공휴일 등이 포함된 점에 큰 이유가 있다. 미국 학생 중 학업을 한 학생만 대상으로 하여 한국 학생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 학생의 학업시간이 더 많으나 그 차이는 상당히 감소된다. 즉 전체평균으로 비교할 때는 한·미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남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그 차이가 7시간 7분이었으나 행위자평균시간으로는 3시간 29분으로 감소하였다. 행위자를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차이가 여전히 큰 점에서 한·미 양국 학생의 학업시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을 위한 노동을 한 학생의 비율 및 행위자의 평균시간도 차이가 크다. 한국의 경우 남자 중·고등학생 중 1명만 일을 30분 한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 집단별로 다르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29.6~37.9%가 평균 2시간 59분~4시간 55분 일한 것으로 보고되어 한·미 양국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의 행위자 비율이 미국 학생에게서 초등학생의 경우 30%대, 중·고등학생의 경우 50%대로 나타난 것은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조사된 경우가 많은 점과 함께 학교가 집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 주목을 끄는 점은 한국의 중·고등학생 중 사회·문화적 시간이 전혀 없는 비율이 2할 정도나 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한·미 양국간 자녀의 성별, 연령별 시간사용의 전체평균과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을 비교하였다. 종합해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점을 알 수 있다. 즉 남녀 어떤 연령대라 하더라도 한국의 자녀는 미국의 자녀에 비하여 수면 및 휴식은 적게 하고, 식사시간은 많으며, 학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사노동, 수입노동, 사회·문화적 활동을 위한 시간소비는 적다. 이는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시간이 조화롭게 배분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학업중심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영역에 걸친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시간배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V. 결론

한국과 미국 가족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산업사회라는 공통된 특성이 주는 영향보다는 동서양의 각각 상이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양국 국민의 생활에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시간비교를 통해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영역 중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으로 미국 남편은 가사노동참여 시간, 행위자율 등에서 한국 남편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이는 한국 남편의 의식구조 속에 가장장적인 사고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가사노동시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부부간에 가사노동이 대체적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보다 전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부부간에 가사노동이 보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부부간 가사노동수행이, 한국은 부인의 취업이라는 상황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미국은 부인이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남편도 집안 일을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부부관계의 속성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 부부간에 식사시간의 차이가 크며 생리적 시간의 차이는 식사시간의 차이에 근거한다. 식사시간의 차이는 양국의 식생활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의 식사시간이 생각 외로 짧게 나타난 것은 식사시간을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할 경우 이를 식사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은데, 즉 시간 분류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식사시간의 차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노동시간이 한국의 남편과 취업주부 모두에게서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근로자의 장시간노동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남편 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현저하다. 한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이 미국의 취업주부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동시간에 있어서 한국의 부부가 미국보다 긴 것은 도시의 크기와 교통 혼잡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넷째,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부부가 미국보다 적게 나타나 한국 부부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욕구 충족의 기회가 뒤떨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보편화되어 있는 주5일제근무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풍부한 여가시설 및 설비가 사회·문화적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제약을 자신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희생함으로써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전일제취업주부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사회문화적 시간에 차이가 없어 부부 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한·미 양국 부인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 있어 식생활관리와 의생활관리에 있어서는 한국의 부인이, 주생활관리, 가족원 돌보기 및 구매와 가정관리에 있어서는 미국의 부인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가사노동생산양식에 있어서 양국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양국 부인간 가사노동시간의 차

이는 한국과 미국의 식생활양식의 차이, 주거면적의 크기나 주거환경의 차이, 세탁방법, 건조방식, 의복관리 및 세탁물 오염정도의 차이, 자녀양육 및 교육방식과 가정관리행동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돌보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돌보기 중에서도 신체적 돌보기보다는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에 미국 부인이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가정내 자녀교육이 미국 가정에서 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가정교육의 많은 부분이 학교나 학원 등 가정 밖 기관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영역별 시간배분 비중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식생활관리의 비중이 가장 크고 특히 전일제취업주부의 경우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근무시간에서 오는 시간제약 중에서도 식생활관리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주부들은 가족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관계적 노동을 중시하며 전일제취업주부의 경우 가족돌보기 외에 주생활관리에 많은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시간제약 중에서도 자녀와 주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남편은 가사노동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가족돌보기 영역에만 치중하고 있어 반여가적인 성격의 일에만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남편 중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은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집단보다 적지만 영역별 가사노동에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부인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녀의 생활시간에 있어서도 양국간에 큰 차이를 보여 양국의 자녀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의 차이는 양국간 생활습성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별 차이 역시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의 자녀는 학업시간과 이동시간이 많아 한국의 교육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여가시간도 아주 적어, 생활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자녀들은 학업에 보내는 시간이 적고 그 대신 가사노동이나 수입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사회·문화적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학업, 노동, 여가가 비교적 균형을 이룬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 자녀들의 적은 학업시간은 하루 평균 학업시간이 적은 데 기인하지만 그 외에 home study 등으로 인해 학교를 쉬는 날이 많은 데도 기인한다.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거쳐 시간을 조화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학업중심의 생활을 지양하고 그 시간을 생활의 다른 영역, 즉 가사노동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에 보다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미 양국 가족은 생활습성과 생활규범, 가치관, 환경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국간의 시간차이가 실제의 생활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표집에 의한 오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표집한 지역의 크기가 다

르고 특히 미국의 표집지역은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식사시간 등에서 보듯이 조사방법이나 시간범주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시간의 차이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간조사를 토대로 비교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를 요한다. 앞으로 표집지역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거나 또는 표집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해서 시간조사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사방법, 조사대상, 생활시간분류 등을 동일하게 한 조사를 양국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시간배분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양국간의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이 생활시간배분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선진대국인 미국과의 시간비교를 통해 나타난 한국 가족의 생활시간상의 문제점으로 남·녀역할분담의 고정화, 취업한 남성과 여성의 장시간노동, 초·중·고등학생의 불균형한 학업편중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가족원들의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생활 영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개별 가족적 차원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노동정책, 교육정책, 청소년정책, 교통정책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2년 3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9일

【참 고 문 헌】

- 김선희(1996). 아동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고신대아동연구 5, 40-52.
- 도종수·정문성(1993).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64-79.
- 두경자(1995). 기혼여성(가사전담 전일제근무 취업주부와 완전자력 전일주부)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삼명대 사회과학연구 7, 297-320.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2001).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5-3).
- 이정덕(1991). 靑少年의 生活時間 使用變化傾向에 관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03-221.
- 조희금·이기영·이연숙·김외숙(2000). 한·일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14.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통계청.

- Amano, J., Matsubaguchi, R., Ito, S., Ito, J., Horiuchi, K., Saito, E., Mizunoya, T., Lee, K. Y., Lee, Y. S., Cho, H. K., Kim, O. S.(1998).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Use in Seoul and Tokyo-Social/Cultural Activity Time,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5(1), 22-27.
- Douthitt, R. A.(1991). Children's time use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 Does household organization matt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0(1), 40-51.
- Lawrence, F. C., & Tasker, G. E.(1983). Time spent in housework by urban adolesc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99-207.
- Lawrence, F. C., Tasker, G. E. & Babcock, P. H.(1983). Time spent in housework by urban adolesc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99-205.
- Lawrence, F. C., Tasker & P. H. Wozniak(1988). Rural-Urban Differential in Children's Household Production Ti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1), 39-47.
- Matsubaguchi, R., Amano, H., Amano, H., Horiuchi, K., Ito, S., Saito, E., Ito, J., Mizunoya, T.(1997).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use in Seoul and Tokyo(1995)- Paid work time, 1997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ARAHE.
- Pentland W. E., Harvey, A. S., Lawton, M. P.(1999).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Szalai, A.(1972). *The use of time -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Mouton.
- Sanik, M. M., & Stafford, K.(1986). Boy/girl differences in household 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209-219.
- NHK 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1995). 生活時間の国際比較. 東京:大空社.